

아회도(雅會圖)에 나타난 조선후기 원림문화*

임의제* · 소현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Landscape Gardening Culture in Late Joseon Dynasty Depicted in 'Ahoi-do' Paintings

Lim, Eui-Je*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contemplated the gardening culture from the pictures, which the scholars of late Joseon Dynasty, the aspects of garden landscapes and garden use behaviors are drawn as follows.

1. The yard by the detached house for men and guest in front of the premises(Sarang Madang) and backyard were the major places for Ahoi(social gatherings of the scholars). The mansions had interests in the management of the outer garden beyond the house wall with building structures like the pavilions on the high walls and side gates. This management and the selection of location anticipating in advance of the management are noteworthy. 2. Only house gardens had plant pots with flowers and the small flower bed(Hwa-O) at Sarang Madang occasionally had plant pots without flowers and oddly shaped stone pots and equipped pine branch eaves and traditional awnings made of plant material like a trellis. 3. The oddly shaped stones were significant landscape elements in the gardens of houses and villas. Some of them were depicted as the Taihu stone and this draws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aihu stone was actually used in the garden of late Joseon Dynasty. 4. The gardens in villas accommodated the borrowed scenery with various materials like wooden fences, bamboo or reed fences, mud walls. They also had the artificial gardens with some odd shaped stones, old pines, bamboos, Japanese apricots, willows, paulownia trees, lotuses and plantains in the secured Madangs. 5. Gyeong Hwa Sa Jog(The scholars of the ruling class adapted to the 18th century's new historical aspect) of late Joseon Dynasty built the villas at the beautiful scenery closed to the their houses. 6. The Gardens around pavilions were located high closed to the mountain streams with nature like beautiful forests, oddly formed rocks, precipitous cliffs and viewing stones. The back side of the pavilion was enclosed by bamboo forests and the front had pines, ginkgoes and willows as shade trees. 7. The beautiful scenery which was preferred as the place for Ahoi was basically with fantastic peaks and precipitous cliffs which forms the distant view harmonized with a waterfall. Broad and flat rocks at the summit of a mountain which commands a bird's-eye view or on a mountain streamside with pine forest, willows and plum trees were chosen as the optimal places for Ahoi. 8. Pine trees were presumed to be more preferable than other species in the garden, especially an single planted old pine tree accented symbolism. 9. Portable tea braziers for boiling tea were adopted in all four types of the gardens. 10. The gardens mixed with auspicious landscape elements were the places of the arts for an unworldliness Ahoi through GeumGiSeoHwa(enjoying strings, go, writing and painting) and boiling tea.

Keywords: Traditional Garden, Villa, Pavilion, Beautiful Scenery, Enjoying Arts

* 이 논문은 2013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 So, Hyun-S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South Korea. Phone: +82-10-3664-8565, E-mail: hssou@uos.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후기에 성행한 아회도가 기록화의 가치를 지남에 주목하여 도판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원림문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아회도에 묘사된 원림의 경관과 이용행태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제택에서 아회의 주된 장소는 사랑마당과 후원이었으며, 대저택에서는 높은 담장 위에 정자를 설치하고 셋문을 두는 등 외원(外園)의 경영과 이를 염두에 둔 입지 선정이 주목된다. 둘째, 화훼류를 심은 화분은 주택 정원에서만 사용하고, 사랑마당의 화오(花塢)에 식물 없이 화분과 괴석분을 놓은 경우가 있었으며, 송침(松簷)과 그늘시렁 같은 식물 재료를 이용한 전통 차양시설을 설치하였다. 셋째, 제택과 별서 원림에서 괴석이 중요한 경관요소였으며, 일부는 태호석(太湖石)으로 묘사되어 조선 후기 원림에 실제 도입된 것인지 그 여부가 주목된다. 넷째, 별서 원림은 목책, 바자울, 토담 등 다양한 재료로 낮은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경을 도모하고, 마당을 확보하여 지당, 괴석과 노송, 대나무, 매화, 버들, 오동, 연, 파초를 심어 인위적 정원을 조성하였다. 다섯째, 조선 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은 제택과 인접한 한양의 승경지에 별장형 별서를 조영하였다. 여섯째, 누정 원림은 수림(樹林), 기암(奇巖), 단애(斷崖), 수석(水石)이 아름다운 계류변의 자연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정자의 뒤편은 대나무 숲으로 위요하고 앞쪽에는 소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정자목을 식재하였다. 일곱째, 아회의 장소로 선호되었던 승경의 구조는 기봉(奇峰)과 단애가 골격이 되고 폭포가 어울려 원경을 이루었으며, 부감(俯瞰)이 가능한 산봉우리 너럭이나 송림, 버드나무, 매화가 있는 계류변 너럭바위가 아회의 적지였다. 여덟째, 원림에서 소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하여 선호된 수종으로 추정되며, 특히 노송(老松)을 단식(單植)하여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아홉째, 전다(煎茶)를 위한 이동식 다로(茶爐) 시설이 네 가지 유형의 원림 모두에 도입되었다. 열 번째, 길상적 경관요소들이 어우러진 원림은 문인들의 금기서화(琴棋書畫) 및 전다를 통한 탈속적 아회를 위한 풍류의 장이었다.

주제어 : 전통원림, 별서, 누정, 승경(勝景), 풍류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조선시대 문인들은 시문을 짓기 위해 특별한 모임을 가졌으며, 여기서 그림을 그리거나 거문고를 타는 등 예술 창작 활동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렇게 풍류를 즐기거나 시문을 짓기 위한 모임¹⁾은 ‘아회(雅會)’와 ‘아집(雅集)’이 대표적인데, ‘아집’이 구체적 모임명이나 작품명에 사용된 것에 비하여 ‘아회’는 아집을 비롯한 문인들의 고상한 모임을 포괄하는 총체적 용어로 인식되었다(Song, 2008: 25). 문인들의 아회는 공식적 모임인 계회(契會)와 달리 모임이 자발적이며, 예술적 풍류에 중점을 둔 소규모의 사적 모임이었다. 대부분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야외 아회는 특히 봄에 많이 개최되었는데 이는 난정수계²⁾를 모방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조선 후기에는 아회 참석자의 생일, 득남, 급제, 승진 등 특별한 일을 축하하기 위한 아회와 특정 절기(節氣)를 기억하기 위한 아회 등이 이루어졌다. 전자는 참석자의 자택이나 별서에서, 후자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야외의 승경지에서 주로 개최되었다(Song, 2008: 59).

아회를 기념하여 그림으로 남긴 것이 ‘아회도(雅會圖)’이다. 아회도는 김홍도(金弘道), 이인문(李寅文), 이유신(李維新) 등의 화원 화가들이 많이 남겼으며, 참석자뿐만 아니라 모임 장소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따라서 아회도에서 모임의 개최

시기, 시간, 장소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유희까지 파악할 수 있다(Song, 2008: 224). 또한 계회도(契會圖)의 산수가 정형적 틀로 그려져 표현이 간략한 반면 아회도는 수려한 산수 배경이나 잘 꾸며진 정원을 다채롭게 보여준다(Kho, 2007: 221). 이렇듯 시각적 기록물이라는 아회도의 특성은 조정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아회의 장소와 배경이 된 다양한 원림 유형과 경관 요소가 묘사됨으로써 당시 문인들의 원림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현재 남아있는 전통 원림은 조선시대 이후 조영된 것이 대부분이며, 심한 변형과 훼손으로 원형을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는 식생은 물론이고, 작성자의 의도나 취향과 다른 경영주체의 교체에 따라서 원림의 변형이 심했다. 특히 19~20세기의 근대화 과정은 원림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조경사 연구에서 옛 원림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문헌과 회화 자료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간 미술사학 분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를 조경학과 연계한 학제 간 연구로서 아회도가 지닌 사실적 기록화라는 가치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회도의 도판 자료에 나타난 조선 후기 전통원림의 일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원림문화를 실증적으로 가늠하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성과를 확장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2. 연구사 검토

조경사와 건축사 분야에서 전통 회화를 대상으로 연구한 성과로서 Choi(2007)는 산수화와 전통원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으며, Kim and Bae(2007)는 조선시대 풍속화에 나타난 공공공간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Joh and Seo(2008)는 풍속화를 중심으로 정원에서 이루어진 풍류적 이용 방식에 대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Hong(2008, 2009)은 영조 때 그려진 '장주묘암도(漳州茆菴圖)'에 나타난 정원도해의 성리학적 의미를 해석하고, 겸재 정선(鄭敼, 1676~1759)의 진경산수화 중에서 주택과 정원이 표현된 8점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후기 주택정원을 고찰하였다. 이밖에도 회화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림 구성 요소로서 연(Kim and Hong, 2011), 파초(Rho et al., 2010), 매화(Lim and So, 2012), 학(Kim and So, 2012)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건축사 분야에서 Jung(2009)은 원림기(園林記)와 원림도(園林圖)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의 원림을 연구하였다. 미술사 분야에서 Cho(2006)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소유지를 그린 그림을 별서도(別墅圖)라고 정의하고 제작 배경과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나 아회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 아회도와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한 Song(2003, 2004, 2009)이 '아회도'라는 명칭과 회화사적 의의를 규정하는 등 미술사학 분야에서 아회도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 다루어진 반면 조경 분야에서 아회도에 한정하여 연구된 바는 없다. 특히 Song(2004b)은 정원이 표현된 아회도를 '정원아회도'로 명명하고 정원 모임의 연원, 성격과 시대적 양식과 형식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아회도를 설명한 기록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아회도에 묘사된 원림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10여 점의 아회도별로 원림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아회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40점의 아회도를 통찰하여 조선후기 원림의 양상을 설명하려는 본 연구와 차별이 된다.

이상에서 회화를 통해 전통원림의 형태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론임을 인지할 수 있는데, 조경학에서 접근했던 회화 자료는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나 상상 속 관념 산수화를 포괄하여, 모두 산수화의 범주에서 이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풍속화 계열³⁾에 속하는 특징적 회화인 아회도에 집중하여 전통원림의 물리적 구성과 경관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범위와 대상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7~19세기에 이르는 조선후기로

한정하였다. 이 때는 문화적으로 가장 화려한 성과가 이루어진 시기로서 고유의 진경산수화가 발달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아회도가 태동하고 전성기를 이룬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회도를 통해서 문화 절정기 원림의 실체에 다가가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조선후기 아회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유행하였던 사대부 문인의 모임인 제회 광경을 그린 '제회도(契會圖)'에서 조선시대 후기 문인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을 분류하여 이름 붙인 것이다(Song, 2008: 14). 본 연구는 미술사학 분야의 기존 연구와 문헌 자료에서 제시된 조선후기 아회도를 수집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 선조들이 정원문화로서 아회가 이루어진 다양한 장소를 전통원림으로 이해함으로써 원림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아회도까지 망라하여 수집하였다. 모임 장소를 선정한 문인들의 안목은 이들의 풍류와 선호한 경관 요소 등 승경관(勝景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회화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진행하는데, 먼저 조선후기에 제작된 아회도 총 49점을 수집하였으며, 이중 정황은 파악되지만 원림 표현이 미약한 9점을 제외하고⁴⁾ 40점의 아회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아회도별로 화제(畫題), 수록 화첩(畫帖), 화가(畫家), 제작 시기와 그림의 소장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아회도를 설명하는 기록과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아회 시기와 장소 및 묘사된 정황으로 아회도에 표현된 경관의 개요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아회도에서 묘사된 대상을 제택, 별서, 누정, 승경지의 네 가지 원림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원림 유형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택은 사랑채, 안채 등 두 채 이상의 건물군으로 이루어진 경우, 별서는 한양의 별장형 별서를 포함하고 누정 건물과 함께 지당, 식재, 담장 등으로 내원을 조성한 경우, 누정은 자연 승경지에 단출한 건물만 놓인 경우, 승경지는 건물과 인위적 조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Table 2에 각 원림 유형을 대표하는 아회도를 8점씩 예시하였다.

연구의 다음 과정은 아회도에 표현된 경관을 이해하기 쉽게 공통 항목 몇 가지로 경관 구성요소를 정리하는데, 식생과 동물요소, 인공요소, 산수요소로 세분한景物(景物)과 경색, 그리고 풍류에 해당하는 이용행태로 구분한다. 그리고 분석 시 해당되는 아회도를 지칭하기 용이하도록 제택은 a, 별서는 b, 누정은 c, 승경지는 d로 분류하고 해당 아회도마다 번호를 붙였다. 본론에 들어가서 원림 구성 요소와 이용행태의 양상을 분석하여 아회도에 나타난 원림문화를 이해한다. 다음은 네 가지 원림 유형별 경관을 대표하는 아회도를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인물의 행태 묘사와 도입된 원림구성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

하여 그 의미를 고찰한다. 이는 연구의 목적인 아회도에 나타난 조선 후기 원림문화를 구체화하는 것이며, 전통원림 경관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선 후기 원림의 특성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이때 그림에 연관된 화제, 서문이나 발문(跋文) 등 기록과 자료를 참고하여 아회의 형성 배경이나 성격, 그림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이용행태와 식생을 판별하는데 이용하였다.

즉, 조선시대 식물 관련 문헌에 나타나는 수종 중에서 독특한 수형과 잎의 형태 등으로 판별되지 않는 수종은 자료를 통해서 식재 정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회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아회도에 묘사된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배경과 의미로 완성되었던 것인지 고찰함으로써 조선 후기 원림문화를 해석하였다.

Table 1. List of Ahoi-do of Late Joseon Dynasty as Subjects of Study

연번	아회도명	수록 화첩	화가	제작	소장처	표현 경관	원림 구분
1	청풍상춘도(淸風賞春圖)	청풍계첩(淸風溪帖)	미상	1620	개인 소장	북촌 청풍계 태고정의 풍경	별서
2	봄(春) 아회도	도국가첩(桃菊佳帖)	미상	1742	개인 소장	봄철 계류변의 산수 풍경	승경지
3	가을(秋) 아회도	도국가첩(桃菊佳帖)	미상	1742	개인 소장	가을 계류변의 산수 풍경	승경지
4	와룡암소집도(臥龍庵小集圖)		심사정(沈師正 1707-1769)	1744	간송미술관	와룡암 마당의 노송 그늘	별서
5	아회도(雅會圖)	섬사편(剡社編)	이철환(李喆煥 1722-1779)	1754	개인 소장	안산 단원(檀園) 주변 풍경	승경지
6	사인사예도(士人射藝圖)	사인삼경첩(士人三景帖)	강희연(姜熙彦 1710-1784)	18c	개인 소장	계류 변 노송 아래 활쏘기	승경지
7	수하한담도(樹下閑談圖)		이인상(李麟祥 1710-1760)	18c	개인 소장	계곡의 고목 아래 풍류	승경지
8	성내청풍도(城內淸風圖)		미상	18c	개인 소장	누정 주변 도성(都城) 풍경	누정
9	단원도(檀園圖)		김홍도(金弘道 1745-?)	1785	개인 소장	김홍도의 별서 풍경	별서
10	삼공불환도(三公不換圖)		김홍도(金弘道 1745-?)	1801	호암미술관	사랑채와 정원 마당의 풍경	제택
11	평대아집도(平臺雅集圖)	고송유수첩(古松流水帖)	이인문(李寅文 1745-1824)	18c	국립중앙박물관	대(臺) 위에서의 풍류	누정
12	대택아회도(大宅雅會圖)	고송유수첩(古松流水帖)	이인문(李寅文 1745-1824)	18c	국립중앙박물관	저택 별당정원과 주변 풍경	제택
13	송계아집도(松溪雅集圖)	고송유수첩(古松流水帖)	이인문(李寅文 1745-1824)	18c	국립중앙박물관	폭포와 소나무 숲의 풍경	승경지
14	누각아집도(樓閣雅集圖)		이인문(李寅文 1745-1824)	1820	국립중앙박물관	인왕산 자락 누정 원림	누정
15	십우도(十友圖)		이인문(李寅文 1745-1824)	1783	국립중앙박물관	폭포 아래 계곡의 풍류	승경지
16	가현관매도(可軒觀梅圖)		이유신(李維新 18세기)	18c	개인 소장	사랑채와 대화 정원의 풍경	제택
17	굴현납량도(橘軒納涼圖)		이유신(李維新 18세기)	18c	개인 소장	사랑채와 정원 마당 풍경	제택
18	행정추상도(杏亭秋賞圖)		이유신(李維新 18세기)	18c	개인 소장	정자 주변의 가을 풍경	누정
19	후원아집도(後園雅集圖)		미상	18c	국립중앙박물관	후원의 연지(蓮池)와 노송	제택
20	이완와수석시회도(易安窩壽詩會圖)		정황(鄭樞 1735-?)	1789	개인 소장	정원 마당의 시회 풍경	제택
21	백사회야유도(白社會野遊圖)		정수영(鄭遂榮 1743-1831)	1784	개인 소장	계류변 소나무 숲의 노인회	승경지
22	송정한담도(松亭閑談圖)	십로도상첩(十老圖像帖)	강세황(姜世晃 1713-1791)	1790	호암미술관	송정(松亭)과 주변 풍경	누정
23	장동춘색도(壯洞春色圖)		정선(鄭敼, 1676-1759)	18c	개인 소장	인왕산 장동 일대 풍경	승경지
24	설리대적도(雪裏對炙圖)	옥계십이승첩(玉溪十二勝帖)	임득명(林得明 1767-1822)	1786	삼성출판박물관	인왕산 옥계의 눈내린 정원	별서
25	임류탁영도(臨流濯纓圖)	옥계십이승첩(玉溪十二勝帖)	임득명(林得明 1767-1822)	1786	삼성출판박물관	인왕산 옥계 일대 풍경	승경지
26	등고상화도(登高賞花圖)	옥계십이승첩(玉溪十二勝帖)	임득명(林得明 1767-1822)	1786	삼성출판박물관	인왕산 옥계 일대 풍경	승경지
27	취봉반조도(翠峯半照圖)	옥계십경첩(玉溪十景帖)	임득명(林得明 1767-1822)	1791	British Library	인왕산 옥계 일대 풍경	승경지
28	송석원시회도(松石園詩會圖)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	이인문(李寅文 1745-1824)	1791	개인 소장	인왕산 옥계의 송석원 풍경	별서
29	송석원시사야연도(松石園詩社夜宴圖)	옥계청유첩(玉溪淸遊帖)	김홍도(金弘道 1745-?)	1791	개인 소장	인왕산 옥계의 송석원 풍경	별서
30	하일주연도(夏日酒宴圖)		이수민(李壽民 1783-1839)	1819	개인 소장	사랑채와 정원 마당의 풍경	제택
31	금호완춘도(琴湖玩春圖)		김석신(金碩臣 1758-?)	19c초	개인 소장	한강변 금호동의 별서 풍경	별서
32	산방전별도(山房錢別圖)		신명준(申命準 1808-?)	19c	개인 소장	산 속 별서 주변의 풍경	별서
33	구로고회도(九老高會圖)		김준영(金準榮 1842-?)	1865	개인 소장	별서 정원의 노인회 모임	별서
34	청설연금첩(聽雪聯吟圖)	청설연금첩(聽雪聯吟帖)	이용림(李用霖 1839-?)	1869	개인 소장	산 속 별서 주변의 풍경	별서
35	수계도권(修禊圖卷)		유숙(劉淑 1827-1873)	1853	개인 소장	누정 주변의 별서정원 풍경	별서
36	벽오사소집도(碧梧社小集圖)	오로회첩(五老會帖)	유숙(劉淑 1827-1873)	1861	서울대박물관	벽오사 정원 마당의 풍경	제택
37	조산루상월도(船山樓上月圖)		유숙(劉淑 1827-1873)	1870	간송미술관	조산루에서의 달 감상	누정
38	세검정도(洗劍亭圖)		유숙(劉淑 1827-1873)	19c	국립중앙박물관	세검정 주변의 풍경	누정
39	금란계도(金蘭契圖)	금란계첩(金蘭契帖)	미상	1857	국립중앙박물관	북한산 중흥사 누정 원림	누정
40	문인아집도(文人雅集圖)		미상	18-19c	개인 소장	산 속 별서 정원의 풍경	별서

Table 2. Examples of Ahoi-do by Garden Types

원림 구분	대표적 아회도(괄호 안의 숫자는 Table 1의 연번)			
제택	A landscape painting showing a pavilion by a stream with a large tree in the foreground.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nestled among trees and rocks.	A landscape painting of a large pavilion with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small pavilion in a mountainous area.
	가현관매도(16)	굴현납량도(17)	대택아회도(12)	벽오사소집도(36)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with a stone arrangement in the foreground.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with a large tree.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with a garden.
	이안와수석시회도(20)	삼공불화도(10)	후원아집도(19)	하임주연도(30)
별서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구로고회도(33)	금호완춘도(31)	청풍상춘도(1)	문원아집도(40)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산방전별도(32)	송석원시야연도(29)	와룡암소집도(4)	청설연금도(34)
누정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금란계도(39)	누각아집도(14)	성내청풍도(8)	세검정도(38)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송정한담도(22)	평대아집도(11)	행정추상도(18)	조산루상월도(37)
승경지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도국가첩 가을(3)	도국가첩 봄(2)	백사회야유도(21)	송계아집도(13)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A landscape painting of a pavilion in a garden.
	수하한담도(7)	심우도(15)	아회도(5)	임류탁영도(25)

* 편집 여건상 일부 아회도는 부분 이미지를 수록하였음.

III. 결과 및 고찰

1. 아회도에 나타난 원림문화

1) 아회도에 묘사된 원림 유형

연구 대상 아회도는 17세기 1점, 18세기 29점, 19세기 10점이 제작된 것으로 나타나 18세기가 아회도의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다. 조감도와 같이 전체를 일괄되게 보여주지 않는 회화 자료의 특성상 원림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분류 기준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아회가 이루어진 원림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40점의 아회도를 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제택이 8점, 별서가 12점, 누정 8점, 자연의 승경지가 12점인데, 한 가지 원림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있어서 조선시대 문인들은 훌륭한 원림이 있는 곳 어디서나 즉흥적이고 풍류적인 모임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2) 원림의 경관요소

(1) 식생 및 동물요소

아회도에 표현된 식생 중 소나무(松), 노송(老松), 송림(松林), 대나무(竹), 버드나무, 회화나무, 연(蓮), 파초(芭蕉), 소철(蘇鐵), 국화(菊)와 같은 수종은 조선시대 식물 관련 문헌에 나타나는 수종을 염두에 두고 독특한 수형과 잎의 형상으로 판별 가능하였다. 그밖에 식재 정황이 파악되는 내용으로서 전나무(청풍상춘도: 여타의 청풍계를 그린 그림 및 자료와 비교), 매화(가헌관매도: 題詩 '가헌에서 매화를 보다'), 은행나무(행정추상도라는 화제), 도화(桃花)와 국화(桃菊佳帖 봄·가을 아회도: 이득종의 서문 '복숭아꽃과 국화 피는 봄·가을에 모임') 등은 그림과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분석하여 수종을 판단하였다. 나머지 정확한 수종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수림(樹林), 고목(古木), 화목(花木), 관목(灌木)으로 구분하였다.

출현 빈도로 보았을 때 연구 대상 아회도 40점 중 31점(77.5%)에 묘사된 소나무는 다른 수종에 비해 선호된 수종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노송의 형태로 단식(單式)된 경우(a7, a8, b1, b2, b4, b5, b6, b10, b11, c5, d2, d5, d10)가 두드러져 그 상징성이 강조된다. 즉, 노인들의 아회 모임 비중이 컸기 때문에 장수, 지조, 절개, 은자(隱者)를 상징하는 소나무가 반영된 것이다. 그밖에도 은행나무, 회화나무, 매화 등 고목(古木)이 제택 후원 마당이나 별서 담장의 내 외부, 누정 주변에 주로 단식되었다. 이렇게 독립된 고목 아래에서 아회(a8, b10, c10, d5, d7)가 이루어져 녹음식재 기능을 보여준다.

아회도상에서 학, 나귀, 사슴이 등장하는데, 관념적인 산수화나 고사인물도에서 즐겨 표현된 학은 비교적 적었으며 나귀는 아회의 특성상 빈객의 이동수단으로 묘사되면서 자주 등장한다.

(2) 인공요소

주로 제택과 별서의 원림에 도입된 인공요소는 정자(亭子, 瓦亭), 모정(茅亭), 대(臺), 지당(池塘), 화분(花盆), 괴석(怪石), 화오(花塢), 원장(垣牆: 울타리, 담장), 석축(石築), 평상(平床), 송침(松簷), 그늘시렁, 다로(茶爐), 병풍, 촛대, 문방용품(文房用品), 촌락(村落), 과수원이다.

파초나 화훼류를 심은 화분은 제택의 정원(a1, a2, a6)에서만 나타나고, 제택과 별서의 정원 마당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괴석(a1, a2, a3, a5, a6, a7, b1, b3)은 학, 사슴, 소나무와 함께 십장생을 상징하는 정원 경관요소였다. 이에 대해 Song(2008: 97)은 조선후기 경화사족(京華士族)들이 "서재 주변에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학, 괴석, 파초, 대나무, 소나무 등을 배치하였는데, 괴석은 우주의 축소판으로 간주하여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고, 화훼는 다양한 부귀영화의 상징체로 마당이나 화분에 심었다"고 하였다. 아회도에 표현된 괴석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석분에 담긴 것보다 크고 중국의 태호석(太湖石: a3, b1, b3)과 닮았다. 특히 '대택아회도'에 배치된 괴석은 구멍이 뚫렸으며 사람 키를 넘는 규모인데 궁궐을 포함한 전통원림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조선후기 원림에 실제 도입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된다⁵⁾.

또한 문인들의 아회에서 차를 끓이는 장소는 실내가 아닌 정원이나 야외였으며, 차를 끓이는 시설(a3, b9, c2, c6, d6)로 돌이나 무쇠로 만들어진 이동식 다로(茶爐: 풍로, 화로)⁶⁾가 사용되었다. 한편 전다(煎茶) 풍류와 관련된 원림 유적인 다산초당(茶山草堂)과 일지암(一枝庵) 마당에 설치된 다조(茶竈)는 아회도 상에서 보이지 않는다.

(3) 산수요소

산수자연의 경관요소는 강(江), 계류(溪流), 폭포(瀑布), 수석(水石), 반석(盤石: 너럭바위), 기암(奇巖), 기봉(奇峰), 단애(斷崖)가 나타났다. 특히 계류와 폭포로 대표되는 수(水)요소가 아회도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산수화나 승경지에 자주 등장하는 기묘한 형상의 지형요소가 문인들에게 선호된 경관이었다. 원림에서의 아회는 사계절 중에서 봄철에 많이 열려서 절기(節氣)와 상춘(賞春)이 아회의 중요 고려 사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달이 뜨는 밤이나 해질녘 경색도 완상의 대상이었다.

3) 문인들의 풍류

조선시대 문인들은 학문과 벼슬을 근간으로 삼았지만, 주위 경물에 관심이 많았으며 예술적 감성이 충만했던 이들은 때때로 모여 원림을 완상하면서 시서화를 창작하였다. 조선 후기 문인 유언호(兪彦鎬, 1730~1796)가 그의 친구 이심원(李深遠)의 별서인 '동원(東園)'에서의 아회를 묘사한 글과 김홍도가 아회를 묘사한 '단원도(檀園圖)' 발문에 원림 속에 거하는 문인들의 정서와 풍류가 드러난다.

“동원은 나의 친구 이심원이 거(居)하는 곳이다. 누각, 정자, 나무, 숲, 푸른 연못, 괴석의 아름다움을 원래 성시 산림(城市山林)이라 부른다. 심원 또한 글과 옛 것을 좋아하고 서화(書畵), 금(琴), 경(磬), 종(鍾), 정(鼎)의 옛 물건 등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모두 그 방에 모아 두어서 찬연하여 즐길 만하다(유언호, 『연석(燕石)』 冊二, 「동원아집기(東園雅集記)」, Song, 2003: 51 재인용).”

“창해 선생이 북쪽 백두산을 오르고 변경을 두루 다닌 후, 동쪽 금강산으로부터 나의 조출한 집을 찾은 것이 신축년(1781) 봄 청화절이었다. 원림에 햇빛이 파스하고 온

갖 꽃이 막 피었는데, 나는 거문고를 타고 강희언은 술을 권하고 선생은 모임의 어른이 되시니 이 모임이 진솔회였다(Jin, 1999: 38 재인용).”

문인들은 고상한 군자의 삶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은 일고사⁷⁾들의 행위를 취미 생활로 즐기고 친목 도모를 위한 풍류에 응용하였다. 풍류의 행위 중에서 ‘아(雅)’의 개념과 어울리는 여러 가지 유희가 실천되었으며, 특히 거문고 타기, 바둑 두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는 ‘금기서화(琴棋書畵)’라고 명명되었다(Song, 2008: 44).

Table 3. Landscape Elements of Gardens and Use Behaviors in Ahoi-dos

원림 구분	No	아회도명	경물요소				경색요소	풍류/이용행태
			식생	동물	인공	산수		
a	1	가현관매도	매화/대나무/고목(활엽수)		매화분/괴석/춧대/원장		겨울/밤	한담/음주/분원/정원완상
	2	굴현남량도	매화/고목(활엽수)		화분/괴석/원장		여름	위기/탄금/한담
	3	대택아회도	소나무/대나무/파초/화목	학/사슴	정자/원장/괴석/배/셋문/그늘시렁/다로/춘락	계류/기봉/단애/수석		위기/전다/조어/한담/서화감상
	4	벽오사소집도	대나무/관목		원장	계류/원장/기암		작시/작화/전다/한담/독서
	5	삼공불환도	소나무/버드나무/대나무/파초/연	학/사슴	정자/지당/원장/괴석/과수원/송철/셋문/평상	계류/기암		탄금/음주/오수/끼연
	6	이완와수석시회도	오동나무/버드나무/단풍나무	나귀	화오/화분/원장/괴석	기봉	가을	작시/한담/음주
	7	하일주연도	노송/파초/고목(활엽수)		괴석/원장		여름/밤	한담/음주
	8	후원아집도	노송/연		지당/원장/셋문	기암	봄	조어/위기/서화감상/끼연
b	1	구로고회도	노송/대나무	학	괴석/원장			한담/음주
	2	금호완춘도	노송/대나무/버드나무/매화/활엽수		모정/정자/지당	계류/기암	봄	한담/자연완상
	3	단원도	소나무/버드나무/오동나무/연/파초/소철	학/나귀	모정/지당/괴석/원장/석축/평상	기암	봄	작시/탄금/한담/음주
	4	문인아집도	노송/버드나무		지당	기봉		한담
	5	산방전별도	노송/수림		원장	기암		한담
	6	철리대적도	노송/매화				겨울/눈	한담
	7	송석원지사야연도	소나무/버드나무/수림		정자/원장/춧대	계류/수석	여름/달/밤	작시/한담/음주
	8	송석원시회도	송림/수림		춘락	계류/반석/수석/기암/기봉		한담/자연완상
	9	수계도권	송림/수림		정자/원장/다로/문방용품	계류/기암	봄	작시/전다/한담/자연완상/끼연
	10	와룡암소집도	노송		정자/원장		여름	전다
	11	청설연금도	노송/대나무/매화/오동나무			계류/기암/기봉	가을	전다/한담
	12	청풍상춘도	소나무/매화/버드나무/전나무/수림		지당/정자/원장	계류/기봉	봄	작시/음주
c	1	금란계도	송림/수림		정자	계류/수석/반석/기암/기봉		작화/한담/음주/끼연/자연완상
	2	누각아집도	송림/대나무/수림		정자/다로	계류/기암/단애/반석/수석		작시/탄금/전다/서화감상/자연완상
	3	성내청풍도	소나무/버드나무/대나무	나귀	정자	기봉		한담
	4	세검정도	송림		정자	계류/수석/기암/기봉		자연완상
	5	송정한담도	노송		정자	계류/수석/기암/기봉		독서/한담
	6	조산루상월도	소나무/대나무/모란		다로/문방용품	반석/기암	달/밤	작시/전다/한담/자연완상
	7	평대아집도	소나무/활엽수		누대			위기/한담
	8	행정추상도	은행나무/단풍나무/국화		모정/춘락	기암	가을	한담/음주/자연완상
d	1	가을아회도(도국가첩)	송림/수림(활엽수)	나귀	모정	계류/수석/단애/기암	가을	한담/음주
	2	봄아회도(도국가첩)	노송/버드나무/도화/매화	나귀		계류/수석/기암/기봉	봄	한담/음주
	3	등고상화도	버드나무/화목		춘락	반석		한담/자연완상
	4	백사회야유도	송림			계류/수석/기암		한담/완상/음주
	5	사인사예도	노송			계류/수석/기암/반석		사예
	6	송계아집도	송림		다로	폭포/계류/수석/기암/단애/반석		작화/한담/전다/자연완상
	7	수하한담도	고목(활엽수)			계류/기암/반석		전다/한담
	8	십우도	수림			폭포/계류/수석/단애/반석		작화/한담/품평
	9	아회도(섬사편)	송림/수림(활엽수)		돛단배	강/기봉	해질녘	작시/한담
	10	임류탁연도	노송			폭포/계류/수석/기암/반석		한담/자연완상
	11	장동춘색도	송림/버드나무/화목	나귀	춘락	반석/기봉	봄	한담/자연완상
	12	취봉반조도	수림(활엽수)		춘락/춧대	반석/기봉	저녁	한담/자연완상

아회도는 당시 문인들의 원림 이용행태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분석한 결과 풍류 행위를 나열하면, 작시(作詩), 작화(作畵), 서예(書藝), 한담(閑談, 淸談), 탄금(彈琴; 거문고타기), 전다(煎茶; 차끓이기), 위기(圍棋; 바둑두기), 장기(將棋), 쌍륙(雙六), 조어(釣魚; 낚시), 사예(射藝; 활쏘기), 음주(飲酒), 독서(讀書), 오수(午睡), 선유(船遊), 깃연(喫煙), 감상 및 품평(品評), 분재완상(盆玩), 지당완상(池玩), 자연완상(玩賞) 등 다양하다.

아회도에서 '금기서화'에 해당되는 네 가지 행위는 제택이나 별서, 누정과 같이 인공적 건축물이 있는 곳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달뜨는 밤의 운치가 더해지면 원림으로 촛대를 들고 나와(a1, b7, d12) 경색을 즐겼다. 한편 원림의 아회에서 창작 행위를 하며 술을 마시기와 더불어 차를 끓여 마시고 품평하는 것(a3, a4, b9, b10, b11, c6, d6, d7)이 빠지지 않았다. 전다상(煎茶像)은 관료들의 공식 모임인 계회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으므로 아회만이 가지는 군자들의 탈속적 풍류의 상징이었다(Song, 2008: 56). 이것은 아회도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대화하는 주인 근처에서 다로(茶爐)에 차를 끓이는 동자(童子)로 표현되어 있다. 차를 끓이는 행위와 다로는 아취고절(雅趣高節)을 추구하는 아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으며, 원림을 구성하는 소나무, 오동나무, 파초, 사슴, 괴석, 학 등의 길상적 소재와 함께 문인들의 이상과 풍류성을 상징하는 표상이 되었다.

2. 아회도에 나타난 원림 유형별 경관

1) 제택과 마당

제택에서 이루어진 아회는 실내·외 공간을 가리지 않았는데, 사랑채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a1, a2, a3, a5, a7), 사랑채 앞마당을 이용한 경우(a6), 후원 마당을 이용한 경우(a4, a8)로 나눌 수 있다. 실내에서 모이더라도 마당의 고목이나 정원이 반드시 표현되며, 사랑채 앞마당과 후원의 경관이 비중 있게 묘사되었다.

높은 석재 원장(垣牆)으로 구획된 내원(內園)이 주로 이용되었으며, '대택아회도'나 '삼공불환도'에서 볼 수 있듯 대저택에서는 담장 밖 외부로 드나드는 셋문(협문; 夾門)을 두거나 담장 위에 외부로 시야가 열린 정자를 만들었다. 정자는 계단을 두어 내·외부 정원의 전이 공간 역할을 하고, 서원이나 향교에서 보이는 누하진입(樓下進入)의 문루(門樓) 형식이 아니라 성곽에서 나타나는 석축의 대(臺) 위에 얹힌 형태가 독특하다. 이는 외원(外園)을 경영하려는 의도로 읽히며, 이를 염두에 둔 주택의 입지 선정과 배치가 주목된다. 특히 '대택아회도'에는 주택 외부에 계류와 배가 한 척 표현되고 선착장에서 승선을 기다리는 문인 무리가 묘사되어서 이런 정황이 두드러진다.

'후원아집도'에는 뒤편 산록의 기암에 기대어 화려하게 조성된 정원이 표현되었다. 여러 명이 아회를 즐길 정도의 정원 마

당에 노송 한 그루가 그늘을 드리우며, 그 옆에 연(蓮)이 심겨진 장대석 호안의 방형(方形) 지당이 조성되었다. 또한 '이완와 수석시회도'에는 사랑채 앞 정원에서 펼쳐진 시회 모임이 묘사되었다. 높은 담장에 붙여서 장대석으로 한 단(壇)을 쌓아 만든 화오(花塢)가 있는데, 소쇄원의 도오(桃塢)처럼 화목이나 화분류를 심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식재를 하지 않고 화분과 괴석(怪石盆)을 경관 요소로 배치한 점이 독특하다. 또한 화계가 안채의 후원에 위치하여 아녀자들의 내밀한 휴게 공간으로 이용된 반면, 화오는 사랑마당 등 개방된 공간에 한 단으로 조성되었다(Kim, 2012: 129)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오의 맞은편에는 담장에 기대어 식재된 대형 오동나무를 중심으로 버드나무와 단풍 등 활엽 소교목을 줄지어 심었다.

식재 양상은 담장 내 단식한 노송과(a7, a8), 큰 저택에서는 담장 내외부에 기대어 장송을 여러 그루 식재하는 경우(a3, a5)가 보인다. 오동나무, 회화나무, 매화와 같은 활엽수도 정원에 단식(a1, a2, a6, a7)하였다. 앞마당에 매화를 식재한 경우(a1, a2)는 후원이 중심이 된 전통 정원의 식재 양상과 달리 유교적 상징성을 가진 매화를 사랑채 전면에 식재하였다는 연구 결과(Lim and So, 2012: 74)와 일치한다. 대나무는 후원 쪽 담장 내·외부에 군식하였으며(a3, a4, a5, a7), 사랑채 앞마당에 놓인 괴석의 배경 식재로 이용(a1)되기도 하였다. 특히 사랑채 앞 정원의 중심공간에 심겨진 파초(a3, a5, a7)가 괴석과 함께 배치⁸⁾된 것이 주목된다.

한편 제택에서는 자연 경관보다 담장 안의 인공요소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데, 대저택에서 담장 안에 정자를 지었으며(a3, a5, a7), 사랑채 마당(a5)이나 후원(a8)에 연이 심겨진 방형의 장대석 지당이 조성되었다. '삼공불환도'에는 사랑채의 누하주(樓下柱)가 지당 안에 박혀 있어서 제택의 조경 수법으로 특이하다. 그밖에 주목할 만한 정원시설로서 '삼공불환도'의 사랑채 처마에 설치한 송첨(松簷)⁹⁾은 지금은 볼 수 없는 전통 차양시설이다. 정남향이나 서향에서 처마만으로 햇살을 가릴 수 없을 때 처마 끝에 보첨(補簷) 시설을 덧대는데, 이 중에서 송첨은 생솔가지를 잘라 두름을 엮어 처마 끝에 달아서 소나무향이 그윽하게 풍겨 집안의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였다. 또한 '대택아회도'에는 제대로 형태를 갖춘 그늘시렁이 보인다. 지지대를 세운 후 한쪽은 별당으로 추정되는 건물 지붕의 장변에 기대고, 뼈대를 얹은 지붕에 식물 재료를 엮어 장방형의 차양시설을 만들고 그늘 아래에서 차를 끓이는 모습이다. '옥호정도(玉壺亭圖)'에 표현된 포도시렁(葡萄架; Yoon, 1986: 317)이 수확과 관상 목적에 비중을 둔 것처럼 여태까지 알려진 정원시설물로서 시렁의 기능은 경관 연출이므로¹⁰⁾ 아회도를 통해서 식물 재료를 이용한 주택 내 전통 차양시설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다.

2) 별서 원림

중심 프로그램이 시회였던 아회의 특성상 별서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별서는 산수가 수려한 곳



Figure 1. Landscape Elements of Garden in DaeTaeg Ahoi-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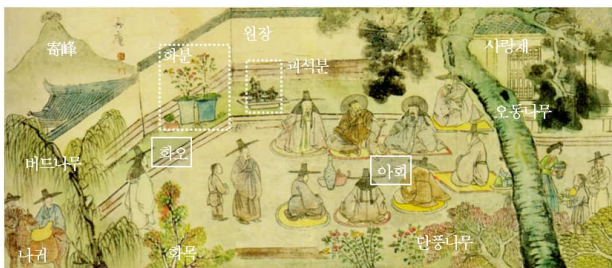


Figure 2. Landscape Elements of Garden in Iwanwasuseogsihoedo

에 정자 규모의 단출한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경계를 설정하여 마당을 확보한 후, 자연에 둘러싸인 최소한의 인공적 영역을 경영하였다. 아회는 건물 내부에서 주변 산수를 완상하는 경우 (b1, b2, b3, b4, b5, b6, b11, b12)와 정원 마당이나 주변 산수 공간에 나가서 풍류를 즐긴 경우(b7, b8, b9, b10)로 나눌 수 있다. 이 유형의 아회도는 울타리 내 정원 뿐 아니라 주변 자연 경관요소도 비중 있게 표현하여 별서 원림의 외부 지향적 특징을 드러낸다. 그림의 별서들은 소박하고 나지막한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경을 도모하는데, 낮은 목책(木柵)이나 바자울(b6, b7), 토담이나 토석담(b3, b10)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자연과 물리적 경계가 없는 경우(b2, b4)도 있다.

한편 '수계도권'에는 그림을 그린 유숙(劉淑)과 함께 한양의 벽오사 동인이었던 최필문(崔必聞)의 별서에서 이루어진 아회 장면이 묘사되었는데, 담장을 둘러친 산록에 와정(瓦亭) 두 채가 묘사되었다. '금호완춘도'는 한강변 승경지¹¹⁾에 조성된 별서 풍경으로서 사랑채로 보이는 추수루(秋水樓) 안에 문인들이 모여 있으며, 계류가 흐르는 인접한 산수 간에 수각(水閣), 개석정(介石亭)이 있고 장대석의 지당이 배치되었다. 또한 '청풍상춘도'는 인왕산 자락의 청풍계(淸風溪)¹²⁾에 있던 조선 후기 안동 김씨 세거지 주변 원림이 묘사되었다. 이 그림은 김상용(金尙容, 1561~1637)과 동생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 참여한 아회 장면인데, 살림집인 저택은 경계만 표시하고, 인접한 별서 풍경을 중심으로 묘사하였다. 소박한 모정(茅亭) 태고정과 함께 조심지(照心池), 함벽지(涵碧池), 척금지(滌衿池)와

얇은 담장 너머 인왕산록과 청풍계류가 표현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여향문인들의 시사(詩社) 중 인왕산 아래 옥류동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옥계사(玉溪社)의 모임을 그린 '송석원시사야연도'와 '송석원시회도'를 통해 천수경(千壽景, 1758~1818)의 별서 '송석원(松石園)'의 주변 승경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옥(玉)같은 계류와 주변 승경을 외원으로 삼고 인왕산록의 너럭바위에 앉아서 밤늦게까지 즐겼다. 이상의 사례에 나타난 원림 유형은 조선 후기 경화사족들이 살림을 겸하거나 혹은 살림집과 인접하여 한양의 승경지에 조영한 별장형 별서¹³⁾에 조영된 성시산림(城市山林)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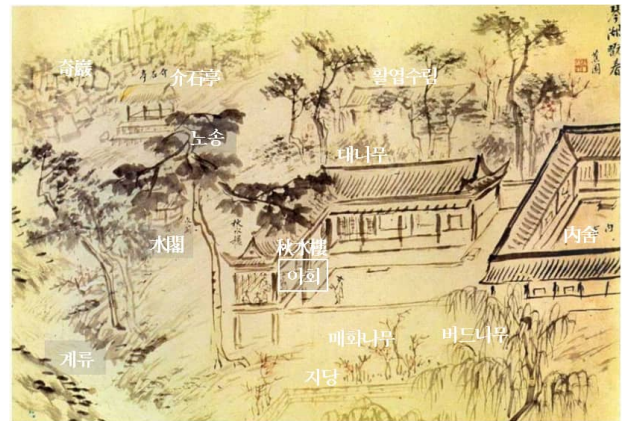


Figure 3. Landscape Elements of Garden in Geumhowanchu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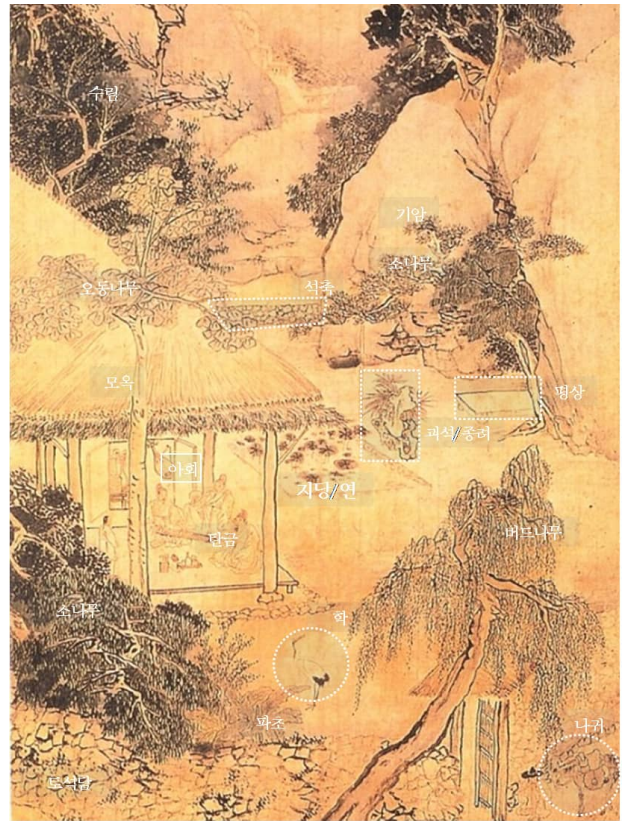


Figure 4. Landscape Elements of Garden in Danwondo

보편적으로 별서 원림의 특성상 자연요소가 주가 되지만, 아회도를 보면 내원에도 인공적 경관요소가 도입되었다. 주변 자연 상태의 송림과 별개로 노송을 단식(b1, b2, b4, b5, b6, b10, b11)한 경우가 많았으며, 대나무, 매화, 버드나무가 자주 쓰였고 오동나무, 연, 파초가 식재되었다. 주택 정원에 비해 여타의 인공요소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별서에도 괴석(b1, b3)에 대한 선호가 보이며 지당(b2, b3, b4, b12)도 많이 조성되었다. 특히 산속에 입지한 김홍도의 별서는 암벽에 기대어 석축을 쌓고 토석담으로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아회가 열린 단출한 모옥 전면에 허튼층 석축으로 연지(蓮池)를 만들고 주위에 괴석과 종려, 평상을 두었다. 아회도는 아니지만 겸재 정선이 인왕산 옥류동의 별서를 그린 '서원소정도(西園小亭圖)'와 그 기문을 보면¹⁴⁾ '단원도'와 흡사하여 내원이 발달한 조선 후기 별서의 일면을 짐작하게 한다.

3) 누정 원림

문인들은 누정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아회를 즐겼으며, '행정추상도'를 제외하면 모두 기와를 얹은 정자로 묘사되었다. 자연 승경지에 입지한 누정 원림의 특성상 인공적 경관요소 대신 자연 수림이나 기암, 단애, 계류, 수석(水石)이 주 경관요소로 등장한다.

'금란계도'는 북한산 중흥사(重興寺) 주변에 있던 누정과 원림 경관을, '누각아집도'는 인왕산 기슭의 정자와 주변 승경을 묘사하여서 당시 선호했던 누정 입지 방식을 가늠할 수 있다. '누각아집도'에는 아회가 열리는 팔작지붕의 정자가 허튼 층 석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면에는 기이한 암반과 송림이 우거져 있다. 인접한 곳에 수석이 아름다운 계류가 휘감아 흐르고, 뒤편에 대나무가 우거진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져 허(虛)함을 보완하고 전면 경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송정단담도', '행정추상도', '성내청풍도'에는 단출한 정자 옆에 식재된 소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는데, 이것은 정자와 정자목이 결합된 전형적 배치 기법이다.

4) 승경지

야외에서 개최되는 아회는 뛰어난 경치를 완상할 수 있는 승경지를 선택하여 시화와 같은 풍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당시 문인들이 선호했던 자연 경관을 유추할 수 있다. '송계아집도'에서 이러한 승경지의 아회 정경이 잘 드러나 있다. 기이한 봉우리와 바위, 절벽으로 위요된 곳에는 폭포가 쏟아지고, 계류 변 송림 아래 너럭바위에 문인들이 모여 폭포 완상, 그림 그리기, 담소(閑談), 차 끓이는 모습이 보인다. 자연 승경의 골격이 되는 지형 경관요소로서 기이한 산봉우리(奇峰)와 단애가 원경으로 나타나고, 암석(奇巖)과 반석이 있는 곳이 아회 장소로 선호되었다. 수(水)요소로 원경의 폭포를 완상 대



Figure 5. Landscape Elements of Garden in Nugagajib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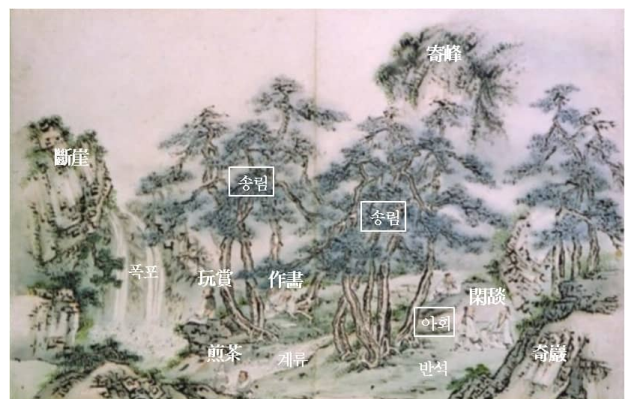


Figure 6. Landscape Elements of Garden in Songgyeajibdo

상으로 하는 경우(d6, d8, d10)와 계류가 흐르는 곳이 많았다. 특히 여러 명이 모이기에 좋은 계류변 너럭바위는(d5, d6, d7, d8, d10) 아회를 위한 적지였다. 또한 대(臺)와 유사한 성격의 산꼭대기 너럭(d3, d11, d12)도 모임 장소가 되어 주위의 산봉우리와 촌락들을 부감(俯瞰)하는 곳이었다.

실제 자연 식생은 다양하지만 아회도에는 몇 가지로 대표 수종으로 압축되어 묘사되었다. 이에 따르면 문인들은 산수 간에서 풍류를 즐길 때도 노송이 홀로 그늘을 만드는 곳(d2, d5, d10)이나 소나무 숲(d1, d4, d6, d9, d11)을 좋아하였다. 그 외

에 버드나무로 대표되는 활엽 고목이나 매화, 도화와 같은 화목류가 심겨진 곳을 즐겨 찾아 아회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전통원림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기록화로서 조선후기에 성행한 아회도에 주목하고, 여기에 원림 문화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담겨있음을 확인하였다. 40점의 아회도 도판 자료를 분석하여 제택, 별서, 누정 원림, 승경지로 원림 유형을 구분하고 분석한 결과 묘사된 원림문화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제택에서 아회의 주된 장소는 사랑마당과 후원이었으며, 화훼류를 심은 화분은 주택의 정원에만 사용되었다. 2. 대저택에는 담장 위에 정자를 설치하고 셋문을 두는 등 외원의 경영과 이를 염두에 둔 입지 및 배치가 주목된다. 3. 사랑마당의 화오에 일반적 처리 수법과 달리 화분과 괴석분만 포치하기도 했으며, 송점 및 그늘시렁 같은 식물재료를 이용한 전통 차양시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4. 제택과 별서 원림에서 괴석이 중요한 경관요소였으며, 일부는 그 형상이 태호석으로 추정되어 실제 조선후기 원림에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5. 별서 원림은 목책, 바자울, 토담 등 다양한 재료로 얇은 울타리를 만들어 차경을 도모하였으며, 마당을 확보하여 지당을 조성하고 괴석, 평상을 포치하고 노송, 대나무, 매화, 버드나무, 오동나무, 연, 파초 등 적극적으로 내원을 조성하였다. 6. 한편 최필문의 별서, 추수루, 김상용의 청풍계 별서, 천수경의 별서 송석원 등 경화사족들은 제택과 인접한 한양의 승경지에 별장형 별서와 성시산림을 조영하였다. 7. 누정 원림은 수림, 기암, 단애, 수석이 아름다운 계류변 자연성이 높은 곳에 조성되었으며, 정자 뒤편은 대나무 숲으로 위요하고 앞쪽에는 소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정자목을 식재하였다. 8. 아회 장소로 선호되었던 승경지는 기봉, 단애, 폭포가 어울려 원경을 이루는 곳이며, 부감이 가능한 산봉우리 너럭과 송림, 버드나무, 매화가 식재된 계류변 너럭바위가 아회의 적지였다. 9. 당시 문인들은 다른 수종에 비하여 소나무를 선호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노송을 단식하여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10. 조선후기에 유행한 전다(煎茶)를 위한 이동식 다로(茶爐) 시설이 네 가지 유형의 원림 모두에 도입되었다. 11. 길상적 경관요소들이 도입된 조선후기의 전통원림은 문인들의 금기서화와 전다가 이루어진 탈속적 아회를 위한 풍류의 장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회도에 묘사된 조선후기 전통원림에는 다양한 경관요소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정원이 조성되었다. 몇 가지 특징적 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전통원림을 고찰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아회도라는 한 가지 유형의 기록물 전체를 조망하고 통찰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성과를 확장

하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 다만 아회도가 문인의 풍속을 충실히 기록한 회화 자료지만, 문인들의 정취를 표현하면서 일부 과장하거나 변용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 주 1) '모이다', '합하다', '만나다'의 뜻으로 '會' '聚' '集' 등이 사용되면서 약속을 의미하는 '계'와 조합하여 '契集'과 '契會'라는 단어를 생산하였다. 모임에 관한 다른 단어로 '會聚'와 '勝會'가 있다. 공식적 약속과 계약에 의하여 성사된 '계집', '계회', '회취', '승회'는 음악, 시, 술, 춤이 동반된 자리였지만 군주와 신하라는 신분 차이와 엄격한 질서가 존재한 행사였다. 시서화 감상 및 제작을 주로 하는 모임에 '아회'와 '아집'이 있다(Song, 2012: 75-77).
- 주 2) 난정수계(蘭亭修禊)는 중국 동진의 왕희지(王羲之)가 서기 353년 그의 별장 난정에서 42명의 문인들과 봄을 맞이하여 벌인 모임이며, 흐르는 곡수(曲水)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이 이루어졌다.
- 주 3) 안희준, 정병모 등의 미술사학계에서는 아회도를 계획도와 풍속화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으며(Song, 2008: 14),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조선후기 풍속화전(2002)'에 아회도와 계획도가 다수 포함되었다.
- 주 4) 수집된 아회도 중에서 원림 유형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9점은 사인시음도(士人詩吟圖, 강희연), 사인회호도(士人揮毫圖, 강희연), 아집도(雅集圖, 이인상), 현정승집도(玄亭勝集圖, 강세황), 현이도(賢已圖, 조영석), 군현도(群賢圖, 김홍도), 포동춘지도(浦洞春池圖, 이유신), 누상위기도(樓上圍棋圖, 전 심정주), 오로회도(五老會圖, 홍필우)이다.
- 주 5) 18세기 이후 북경에 연행사로 다녀온 조선 지식인들이 한족과 사적 교류를 나누고 접촉하는 일이 활발해졌다. 중국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각종 사치성 소비재와 기물의 도입도 늘었다. 조선후기 아회도를 비롯한 풍속화에서 당시 한양 경화세족 사이에 성행한 중국풍의 모방 풍조를 볼 수 있다. 수입 화분에 귀한 화초를 심기도 하였고, 마당에 구멍이 숭숭 뚫린 중국의 태호석이 놓였다(Ahn et al., 2014). 여기에서 그림의 태호석이 중국풍 문인화를 동경하여 그린 것인지는, 실제로 태호석이 수입되어 원림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차후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 주 6) 풍로(風爐)나 화로(火爐)는 불을 피우는 도구이다. 화로는 은로(銀爐), 무쇠화로 등이 있고, 풍로에는 흙으로 만든 전로(埴爐), 곱돌로 만든 것 등이 있었다. 풍로나 화로가 다구로만 쓰였던 것은 아니다. 물을 끓이는 도구를 탕관(湯罐)이라고 통칭하지만 형태에 따라 다리가 달린 솥인 다정(茶鼎), 다리가 없는 솥인 다부(茶釜), 주전자형 철병(鐵瓶) 등이 있었다(http://encykorea.aks.ac.kr).
- 주 7) 중국 진시황 말기에 난세를 피하여 은거한 '상산사호(常山四皓)', 위진남북조시대 '죽림칠현(竹林七賢)', 왕희지의 '난정수계', 북송대 유명 문인들의 전설적 모임인 '서원아집(西園雅集)' 등의 은일고사가 있다(Song, 2008: 31-35).
- 주 8) 이는 파초와 괴석 또는 암석의 동반 사용(67.5%)이 파초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32.5%)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연구(Rho et al., 2010: 30) 결과와 같다.
- 주 9) 고려시대부터 만들어진 송철은 조선시대에는 금송제(禁松制)로 인해서 소나무 가지를 자르기가 어려웠으므로 지체 높은 신분이거나 권력이 있어야 설치할 수 있었던 고급 시설이었다(Sin, 1997: 36).
- 주 10) 나뭇가지나 대나무로 지주대를 설치하고 그 밑에 포도나 오미자, 등나무와 같은 덩굴식물을 심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렁을 타고 올라가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꽃이나 열매 자체가 감상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Kim, 2012: 148). 겸재 정선이 그린 산수화 '인곡정사(仁谷精舍)'에서도 마당의 시렁이 확인된다. 하지만 지붕에 식물재료가 없어 뼈대 구조만 있고 그 규모가 작고 낮은 것으로 볼 때, 차양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주 11) Lim(1993)은 조선시대 한양의 별서 누정 원림이 내사산(內四山)뿐만 아니라 한강변 승경지에도 다수 분포하였음을 밝혔다. '금호완촌도'에 표현된 금호동 지역은 당시 동호(東湖)의 두모포(豆毛浦)

浦), 입석포(立石浦)와 인접한 승경지였다.

- 주 12) 청풍계를 표현한 유명한 산수화들은 모두 정선의 산수화이며, 이에 대하여 Hong(2009)의 연구 성과가 있다.
- 주 13) 별장형 별서란 서울, 경기 지역의 세도가가 조성한 곳으로 대개 살림채, 안채, 창고 등 기본적인 살림을 갖추어 놓은 별서이다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011: 258). 옥호정, 석파정, 부암정, 성락원은 조선 후기 경화사족이 한양에 조영한 대표적 별장형 별서이다.
- 주 14) '서원소정도'에는 중앙에 초가를 엮은 소정(小亭)과 그 주위에 소나무, 버드나무, 방형의 연지가 있으며, 정원 주변에는 나지막한 담과 산등성이가 표현되었다. 또한 조현명의 '서원소정기'에 "서원의 정자는 복산의 좋은 곳에 자리하여 골짜기는 그윽하고 깊고 평평한 경계는 없는 넓은 터이다. 좌우에는 고송이 삼연(森然)한 데 그 가운데에 차례로 층계를 만들어 꽃과 대나무가 돌레를 지었고 못을 만들어 마름이 떠 있다."라는 구절이 정원의 형태를 연상하게 한다(Song, 2004b: 206).

REFERENCES

- Ahn, D. H. *et al.*(2014). Taste of the 18th Century. Paju: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s.
- Ahn, H. J.(1980). History of Korean Painting, Seoul : Iljisa.
- Cho, K. H.(2001). Paintings of Literati Gatherings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century Seoul, Journal of Seoul Studies 16, Institute of Seoul Studies.
- Cho, K. H.(2006). Estate Paintings of the Joseon Dynasty. Ph. D. thesis,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 Choi, J. H.(2007). The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Painting as A Landscape Garden,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4): 13-36.
- Ha, Y. A.(1992). A study on the Paintings of Literary Gathering in the Chosun Dynasty. Master's thesis, Ehwa Wamans Univ., Seoul, Korea.
- Han, K. J.(2013). A Study on the Tea Culture of 18th and 19th Century Joseon Intellectuals. Ph. D. thesis, Sungsin Wamans Univ., Seoul, Korea.
- Hong, H. S.(2008). Metaphor of Explanatory Drawing of Garden in 「Jang-Joo-Myo-Am-Do」,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6(1): 1-8.
- Hong, H. S.(2009). Traditional Gardens that are Represented in Chingyoung Landscape Paintings(眞景山水畫) of GyeomJae(謙齋),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7(4): 61-73.
- Jin, J. H.(1999). A Study on Dan-won Kim, Hong-do, Seoul : Iljisa.
- Joh, K. J. and Seo, Y. A.(2008). A Study on the Garden Meaning of Pungryu through Genre Painting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5): 94-107.
- Joo, M. H.(2010). Tea Culture of the 18·19th Century's Seoul Literary Intellectuals in 'Collecting Classical Works': Focus on Literators' Elegant Assemblies and Ahoedo, Master's thesis, Sunggyungwan Univ., Seoul, Korea.
- Jung, B. G.(2009). A study on the Private Garden in Hanya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 on proses and paintings about garden of Gyeonghwajak, Master's thesis, Hanyang Univ., Seoul, Korea.
- Kim, B. M.(2003). A study on the Paintings of Literati Gathering in the Chosun Dynasty : centered on the works of the sixteenth century. Master's thesis, Hongik Univ., Seoul, Korea.
- Kim, C. H. and Bae H. M.(2007). Articles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Space from the Genre Painting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2): 59-71.
- Kim, H. K. and So H. S.(2012). Cranes(Grus japonensis) Adopted as a Traditional Factor in Landscaping and Gardening Cultur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0(3): 57-67.
- Kim, M. H. and Hong H. S.(2011). Utility and Care Patterns of Lotus Shown in Classic Poetries and Proses, Painting,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4): 1-13.
- Kim, S. A.(2010). A Study on the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View of the Culture of Mental Stroll about Nature, Master's thesis, Univ. of Seoul, Seoul, Korea.
- Kho, Y. H.(2007). Landscape Painting of Joseon Dynasty. Paju : Dolbegai.
- Kim, Y. M.(2012). Traditional Landscape Elements Dictionary, Paju : Dongnyuk.
-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2011). A History of Oriental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 Daega.
- Lim, E. J.(1993).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LuJong of Seoul in the Chosun Dynasty. Master's thesis, Univ. of Seoul, Seoul, Korea.
- Lim, E. J. and So H. S.(2012). Features in Using and Planting of Japanese Apricot Adopted to Traditional Gardens,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0(3): 68-79.
- National Museum of Korea(2002). Genre Painting in Joseon Dynasty, National Museum of Korea.
- Park, S. H.(2013). A study of Yi In-Mun's Elegant Gathering at a Paviloin,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 Seoul, Korea.
- Rho, J. H., Kim Y. S. and Goh Y. B.(2010). Aspects and Significance of Musa basjoo, a Landscaping Plant -Focused on Analysis of Old Paintings of Chosun Dynasty-,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8(2): 23-36.
- Song, H. K.(2003). A Study on Tanguemsang in Ahoi-do of Lat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Society of Onji Studies, 8 : 41-76.
- Song, H. K.(2004a). A Study of Late Chosun 'Ahoi'-do', Ph. D. thesis, Ehwa Wamans Univ., Seoul, Korea.
- Song, H. K.(2004b). A Study of Late Chosun 'Joongwon Ahoi'-do'(Elegant Assembly in the Garden Paintings), Journal of the Korean Cultural Studies, 6: 193-223.
- Song, H. K.(2008). Late Chosun 'Ahoi'-do'(Elegant Assembly Paintings), Seoul : Dahal Media.
- Song, H. K.(2009). Gardens with ponds, Journal of the Society of Onji Studies, 22: 389-426.
- Song, H. K.(2012). Genres and Representations in "Ahoi"-do'(Elegant Assembly Paintings) during the 18th Century, Woori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26: 73-99.
- Sin, Y. H.(1997). Our Culture Neighbor Culture, Seoul : Munhaksochub.
- Suh, Y. G. Written, Ahn, D. H. compiled(2005). Limwonkyungjeji(林園經濟志), Paju : Dolbegai.
- Yoon, G. B.(1986). A History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 Iljogak.
- Yu, O. K.(2011). Study of the 'wine-drinking image' in Joseon paintings, Master's thesis, Ehwa Wamans Univ., Seoul, Korea.
- <http://db.itkc.or.kr>.
- <http://encykorea.aks.ac.kr>.

원 고 접 수 일: 2014년 8월 05일

심 사 일: 2014년 8월 23일(1차)
2014년 9월 02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4년 9월 02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